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 미 성*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전 귀 연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동 특성과 어머니 특성 그리고 맥락적 특성으로 구성하여, 이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들 변인 모두를 고려했을 때 양육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 특성은 성별, 기질, 행동문제를; 어머니 특성으로는 과거 아동기 애착, 성격특성, 부모효능감을; 맥락적 특성으로 결혼 만족도, 사회적지지 만족도, 가정경제력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2002년 10월 3일부터 15일까지 대구광역시 및 경북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통해 만 3-6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도현심(1996)의 양육행동 척도, 천희영(1992)의 아동기질 척도, 김선희와 김경연(1998)의 행동문제 척도, 이현미(1997)가 사용한 Hazan과 Shaver(1992)의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이현수(1985)가 재구성한 Eysenck와 Eysenck(1975)의 EPQ(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최형성과 정옥분(2000)의 부모효능감 척도, Schumm과 동료들(1986)이 개발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 신숙재(1997)의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구성한 사회적 지지 만족도 척도, 본 연구자가 작성한 가정수입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나타내는 가정경제력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아동 특성, 어머니 특성, 맥락적 특성별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이 가장 적은 특성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각 특성의 설명력을 살펴봄과 동시에 특성내의 영향력이 더 큰 요인을 밝히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애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성별, 기질 중 반응성, 행동문제, 부모효능감 중 전반적인 양육능력과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 만족도였다. 통제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의 기질 중 활동성, 어머니의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사회적 지지 만족도였다. 애정적 양육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특성은 어머니 특성이며 다음으로 아동 특성, 맥락적 특성이었다. 통제적 양육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특성은 어머니 특성이며 다음으로 아동 특성, 맥락적 특성이었다. 애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에 모두 어머니의 특성 중 부모효능감이 가장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